

11월의 기도

자녀들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1.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 올 하반기에도 우리 삶의 계획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DCEM 성회안내

2015년 11월 18일에 일본 순복음동경교회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하여
축복성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인, 순복음정릉교회 조종숙목사, 안희순, 이종례,
이형춘, 최인철, 함석숙, Linta Bizna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예수님의 안식

영성 신학자 마르바 텃은 「안식」이란 그의 책에서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안식이란 일하는 것을 그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그치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걱정 근심을 하고 있으면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으로 하는 일만 그칠 뿐 아니라 마음의 염려,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단지 일하던 것을 중단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염려하는 것까지도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쉬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모든 것을 돌보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은 인본주의로 살면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허물, 병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짊어지고 힘에 겨워 허덕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과 오만과 탐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빼앗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려고 하는 교만과 오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히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모르면 안됩니다. 먼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고 즐겁고 영광스럽게 살다가 영원한 안식인 천국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집도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밑에만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잃어버렸던 참된 안식을 회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2015 세계평화와 한반도 안정, 희망 나눔을 위한 기도 대성회



‘2015 세계평화와 한반도 안정, 희망 나눔을 위한 기도 대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과 희망이 세상에 가득하길 염원하는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함성이 하늘 향해 울려졌다.

지난 10월 16일 성회 장소인 서울월드컵경기장은 10만 성도가 운집해 기도 열기로 가득 찼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 땅에 전쟁이 아닌 평화의 시대가 복음으로 열리기를 눈물로 간구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힘찬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여 동안 기도 릴레이가 펼쳐졌다. 이날 자리에는 세계교회성장대회(CGI)에 참석한 해외 교회 지도자들도 기도 행진에 동참했다.

입장식과 준비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열린 제1부는 세계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구하는 시간이었다. 이영훈 목사(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빌 4:6~7)란 제목의 개회 설교로 은혜로운 성회의 포문을 열었다. 설

교 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상 축사를 전하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새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염원했다.

이어 란짓 아브라함(인도), 헤롤드 까바렐로스(파테말라), 유키오 후나츠(일본) 목사의 설교가 선포됐다. 말씀 선포 직후 세계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위한 제목기도와 통성기도가 진행됐다. 또한, 세계 각 나라의 기독교 리더인 밥 로저스, 리처드 로버츠, 제임스 마로코, 프린스 구네라트남 목사의 인도로 7가지 선포의 기도, 개인과 나라를 위한 축복, 신유, 성령의 권능과 인도하심, 남북통일과 변영, 세계교회의 성장과 부흥 등 이 시대의 절박한 상황을 특별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어진 2부 순서로는 나눔과 희망을 전하는 장으로 마련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3부에는 꿈

과 희망을 전하는 장으로서 성회 주 강사인 조용기 목사가 ‘하늘을 쳐다보라’(창 15:1~7)를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조용기 목사는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기도해도 아들을 얻지 못한 것은 마음에 꿈 없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우리 신앙세계에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가 마음속에 꿈과 환상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주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땅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치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며 “바라보라. 믿으라. 입술로 고백하라.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창조 역사를 이뤄주신다”라고 말했다.

성령 충만한 메시지 선포 후에는 말씀을 붙잡고 경기 활성화,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력 회복, 희망 나눔을 통한 상생과 화합, 복음전파와 세계선교사역, 대한민국의 부흥발전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제목기도가 이어졌다.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중략)…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31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행복도 훈련을 해야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리버사이드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 소나 류보머스키 교수는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혔습니다. 그의 연구결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은 10%정도 밖에 안되고, 긍정적인 생각이나 믿음 등 자기의 노력에 의해 행복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한다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임을 믿으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임을 믿어야 합니다. 천하제일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신다는 사랑을 느낄 때 행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오순복음과 삼중축복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속에는 오랫동안 하나님이라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늘 꾸짖는 하나님이 자리잡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58년 목회생활 하는 동안에 깨닫게 된 가장 위대한 발견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험악하고 굶주리고 환경이 어려웠으나 그 가운데서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사랑

을 베푸길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품으시고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시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또 성도들 역시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2.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라

둘째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행복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좋은 점을 들어 이야기하고 말하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일들을 결국 선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쁘고 괴로운 것도 참고 기다리면 나중에 그것이 좋게 변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결국에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인내를 길러 내고 인내는 소망을 길러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은 굉장한 중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의 부정적인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하면 할수록 점점 커지는 법인데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눈덩이 효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눈덩이같이 커지게 되어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밤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

식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같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우리가 늘 기뻐하는 것,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쁘지 않을때라도 항상 “기쁘다. 참 좋다. 할렐루야”라고 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3. 삶의 기쁨과 행복을 나누라

셋째로 삶의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기쁨과 행복을 이웃과 나눠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받은 것을 혼자 누리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게 되면 나는 것만큼 행복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풍족하고 윤택하게 되고 싶으면 가난하고 험벗은 사람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면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삶으로 행복이 만들어지도록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의식적으로 쫓아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꾸어 행복하게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잃어버렸던 참된 안식을 회복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시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안식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6차 세계교회성장대회 은혜롭게 마무리

조용기 목사 이사회에서 ‘긍정적인 자아상’ 강조



지난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제26차 세계교회성장대회(Church Growth International Conference)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이번 CGI대회는 70개 나라에서 2,155명의 목회자들이 방문해 우리 교회의 교회 성장 비결과 조용기 목사의 목회 노하우를 배웠다. 참석자들은 이 기간 동안 기도 대성회, 세미나, 구역예배 참관 등에 참여하며 교회 성장에 대한 꿈과 비전을 안고 돌아갔다.

10월 17일에는 힐튼호텔에서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 DCEM총재 조용기 목사는 4차원의 영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사들에게 창조적인 지도력과 긍정적인 자아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사들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조용기 목사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했다.

또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의견을 나누고 CGI대회를 위한 중요한 안건들이 결정됐다.

신임 이사로는 시가키 시게마사 목사(일본 순복음동경교회), 조아킴 런드퀘스트(스웨덴 생명의 말씀 교회), 디산 위크라마라트네(스리랑카 피플스처치)가 선임됐다.

신임 이사들은 모두 조용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을 토대로 큰 교회를 이끌며 각 나라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다. 시가키 시게마사 목사는 “32년 전 조용기 목사님을 처음 뵈고 4차원의 영성을 배웠고 세계 선교의 꿈을 가졌다. 조용기 목사님과 50개국 348개 도시를 함께 다니면서 선교하며 꿈을 이뤘는데 CGI대회 이사로 선교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내년 제27차 CGI대회 장소를 밥 로저스 목사(루이스빌 세계복음화기도센터)가 사역하는 미국 켄터키에서 개최하기로 정했다. 제 26차 세계교회성장대회는 참석자들에게 교회 성장에 대한 비전과 꿈을 심어준 성령 충만한 축제로 은혜롭게 마무리됐다.

제26차 세계교회성장대회(C.G.I)

세계 교회 목회자들에게 4차원 영성 전수

여의도순복음교회 국제교회성장연구원인 CGI가 주최하는 제26차 세계교회성장대회가 지난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됐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성장비결과 성령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 70개국 2,155명의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축제였다. 올해도 나이지리아 812명, 파키스탄 197명, 남아프리카공화국 143명 등 교파와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 기독교 리더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10월 14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개회식이 열렸다. 제81회 추계 지구역장 세미나와 함께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필 프랭클 목사(호주 C3교회 설립자)의 인사 말씀 후 조용기 목사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을 근거로 ‘예수님의 복음 선언’에 대해 설교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



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다”라며 주님의 놀랍고 역동적인 복음을 전했다.

이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잠든 교회가 되고 만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교 후 외국에서 온 성도들은 모두 일어나

순복음의 스타일로 ‘주여’ 삼창을 외치며 각 나라의 복음화와 교회 성장을 위해 기도했다. 다음날에는 세계선교방안에 대한 논의와 교회성장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조용기 목사를 비롯해 각국 교회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세미나가 진행됐다. 제26차 세계교회성장대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성령 충만한 신앙과 영적 재충만의 시간을 갖고 영혼 구원에 전력을 다할 뜻을 모았다.